

정주여건 개선·인구 8000명 늘어 지역경제 ‘훈풍’

빛가람 혁신도시 6개월 변화하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전 기관들이 안착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한국전력 등 13개 이전 기관이 터를 잡은 지난해 12월만 해도 크게 부족하던 정주 여건은 여섯 달 새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지난 11일 기준 빛가람동의 전입인구는 8000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다. 2023년 인구 5만의 자급·자족도시 건설 목표는 순조로워 보인다. 핵심 기관인 한전의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나주 역시 세계적인 에너지 도시로 탈바꿈할 기세다.

◇광주·전남 지역경제 ‘훈풍’=이전 기관 16곳 가운데 한전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3개 공공 기관이 이전을 마친 현재, 이전 기관 직원 은 모두 6915명이 내려왔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각각 7월, 9월에 착공 예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미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에 선사하는 효과는 눈부시다.

당장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나주시

나주 원도심 식당가 활성화 ... 광주 상무지구도 혜택 에너지밸리 조성 속도 ... 입주기업 이미 10여곳 넘어 병원·금융기관·학원 등 생활 편의시설 406곳 문 열어

는 원도심 식당가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 역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나주에서 맛집에 가려면 예약부터 하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다. 식당가의 활기 덕분에 대리운전 등 서비스업 면허도 지난해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광주 상무지구의 요식·유흥업 역시 ‘일정회식’을 오는 혁신도시 기관 직원들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황으로 ‘된서리’를 맞았던 상무지구는 ‘혁신도시 효과’로 부동산 경기마저 들쭉날쭉하고 있다. 중소형 상가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가 신축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유후지로 남아있던 부지를 매입하는 상황이다.

◇인구 늘고 지역 사회 혜택도 커=지난 11일 나주시 빛가람동주민센터는 8000번째 전입 주민 환영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2월24일 개청한 빛가람동은 1년 만인 2월25일 주민 5000명을 돌파했고, 3개월여 만에 8000명을 넘겼다. 세대 수로도 3000세대가 넘었다. 전국의 타 혁신도시에 비

해 전입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추세다. 입주자 증가로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도 1208명으로 늘었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생활 편의시설도 속속 문을 열고 있다. 각 분야별 병원을 비롯, 식당 86개, 편의점 24개, 분식점·주점·카페·치킨·제과점 51개소, 학원 8개소, 세탁소 7개소, 금융기관 13개소 등 지난달 기준 총 406개의 생활 편의시설이 혁신도시에 갖춰졌다.

정착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 혁신도시 기관들의 지역 사회공헌 활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 봉사활동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고국방문 기회 제공까지 폭 넓은 행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나주시의 소외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은 크게 증가했다.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도 순조로워=지난 9일엔 ‘빛가람 에너지 밸리 연구센터’가 개소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5월29일엔 광주과학기술원에 ‘에너



하늘에서 바라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이전기관과 아파트 등이 들어서 점차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나주시 제공>

지밸리 기술원’의 문을 열기도 했다. 한전이 이전 단계부터 밝힌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은 한전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나주시를 세계적인 에너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빛가람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광주·전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공동 발전하는 스마트 에너지 허브를 만든다는 것이 한전의 핵심 구상이다.

5월엔 ‘빛가람 에너지 밸리’ 글로벌(Glocal) 창조경제 혁신구역으로 키운다는 로드맵도 내놓았다. 빛가람 에너지 밸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은 연구개발(R&D)→제품화→판로개척→수출 등 전 단계를 한전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것이 골자다. 한전은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미 보성파워텍 등 10여 곳의 입주기업

이 탄생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은 나주시에 절호의 기회임은 물론, 나주시를 송두리째 바꿀 미래 사업”이라며 “에너지 기초연구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이주하면 나주는 마치 얼마 전까지만 에너지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전, 광주U대회 경기장 무결점 전력 공급 나서

월드컵 경기장 5중 공급체계 비상상태 대비 상황실 운영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4일 2015 광주국제 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를 위해 U대회 주요 경기장 시설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대책 최종 점검에 나섰다.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은 이날 직접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 등을 찾아 전력 공급선로, 비상발전기 등을 살펴봤다.

또 주경기장에 전원을 공급하는 농성변전소를 방문해 U대회 전력공급현황과 비상대비 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광주·전남지역 전력공급을 총괄하는 ‘광주전남지역본부급전소’도 찾아 여름철 전력수급기간의 전력계통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시했다.

한전은 U대회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 다중 전원을 확보해 만일의 정전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주경기장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는 상시 공급선로, 2개의 예비선로,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의 5중 전원 공급체계를 확보했다.

모든 경기장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연인원 3천523명, 876대의 장비 등을 동원해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광주U대회 전력공급 현황 및 비상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전 제공>

불시 정전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전복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전력 확보 상황실을 운영, 행사장 전력공급 관련 상황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월부터 경기장·선수촌 등 전체 대회 시설의 전력공급설비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공급선로 확충·

취약설비 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지난달부터는 ‘광주U대회 전력확보 기획단’을 조직해 대회 시설 구내 전력설비에 대한 정밀점검과 대회 기간 만일의 고장에 대비한 모의훈련 등으로 무결점 전력공급에 나서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세무사회

김영록 회장 취임

광주세무사회 제22대 회장에 김영록(49·사진) 부회장이 선출됐다. 김 부회장은 24일 광주 마리아주웨딩스퀘어 연회장에서 열린 제41회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추대됐다. 신임 회장은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날 총회에는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임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소통과 상생으로 연구하는 세무사회, 보수로 제값받는 세무사회, 그러면서도 사회에 공헌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전남·전북을 관할하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 단체인 만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은 박봉식, 정성균 회원이 선출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85.53 (+4.33)
- ▲ 금리 (국고채 3년) 1.81% (+0.01)
- ▲ 코스닥 746.62 (+6.80)
- ▲ 환율 (USD) 1108.40원 (+3.80)

코레일, 공항철도 지분 88% 1조8000억에 매각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4.5조 부채감축 효과 기대

코레일은 지난해 출범 이후 최초 영업흑자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2015년에는 흑자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부채감축에 역량을 집중해 부채비율을 200%대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공항철도 지분매각을 통해 어려운 국가 재정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경영혁신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부채비율도 101%p(411%→310%)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백감미,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평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화요일, 휴무일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광주서초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우승신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우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남은행I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